順天金氏中央宗親會

宗 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 順天金氏宗報

제56호 2008. 5. 14 (수)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 발행인 : 김종식/ 편집인 : 김봉환/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新和SILK빌딩 2층/전화 : (02)400-2501~2502/FAX : (02)400-2505

## 戊子年 春享大祭 奉行

순천김씨 중앙종친회는 2008년 4월 11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시조묘역 동원재에서 鍾植 중앙종친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각 지역종친회 및 파종회 회장단과 임원들 그리고 원로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당재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금년 춘향대제는 인섭(부산)종친의 집례로 初獻官에 형삼(담양), 亞獻官에 동춘(안동), 終獻官에 상응(고양) 축관에 백원(해남), 알자에 윤한(안동), 찬인에 병오(부산)등으로 분정하여 봉행하였다.

평소 종친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는 한화그룹 승연 종친은 제단과 영정에 바칠 헌화와 관광버스를 보내어 원로 종친들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날 참례자들은 각 단체별로 헌성금을 쾌척하였다.

| 소 속 | 금 액 |
|---|---|
| 안동종친회 | 100,000원 |
| 고양종친회 | 100,000원 |
| 절재공파 파종회 | 100,000원 |
| 부산종친회 | 100,000원 |
| 망미당 종중 | 100,000원 |
| 김창연 고문 | 200,000원 |

**http://www.schkim.co.kr**

## 2008년 戊子年 順天金氏 第23回 大學生 敎養講座

◈ 목 적 : 순천김씨 자녀들로 하여금 보학교양강좌를 통하여 숭조, 애종, 효친돈목,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4례를 공부함으로써 명문화벌의 자녀로서 긍지를 갖고 국가 사회에 봉사한다.

◈ 강좌일시 : 2008년 8월 4일 - 8월 6일(2박3일)

◈ 입소장소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방축동(동원재)

◈ 강 사 진 : 1) 종친(교수, 법관, 학자)
2) 외부(저명인사 초빙)

◈ 수상자격 : 순천김씨 남녀 대학생 및 동등학력 소지자

◈ 수강인원 : 40명

◈ 접수일자 : 2008년 7월 20일까지

◈ 접수방법 :
1) 개인(서면 혹은 전화전수)
2) 단체(지역종친회 혹은 파종회)

◈ 입 소 자 : 추후 개별 통지함
1) 모든 경비와 소모품은 종친회에서 부담함
2) 교양강좌 이수자에 한하여 장학생을 선발함

◈ 문의전화 : 02)400-2501, 2502 fax: 02)400-2505

2007년 5월 10일

順 天 金 氏 中 央 宗 親 會

# 만인의 귀감인 秀淵 부회장을 찾아서

수연 부회장은 산간벽지 농어촌 섬마을등 문화혜택이 취약한 지역의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한 마을도서관개설사업을 20년이 넘게 펼쳐오고 있다. 좋은책이 좋은삶을 만들고 나아가 좋은세상을 이룰수 있다는 신념으로 책이나 도서관의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던 1987년부터 사재를 털어 작은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해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부터 강원도 고성에 이르기 까지 110여개의 도서관을 개설했으며 책을 필요로 하는곳에 수만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어려서부터 조상의 가르침이자 가훈인 " 사람은 저마다 재물을 탐하지만 나는 오직 내자녀가 어질기를 바란다.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것은 책과 벗하는 일이며 ....(중략)"과 기자시절 선진국의 선진화 배경을 취재하며 독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우리사회 책읽는 문화 만들기에 나서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누구나가 어려서부터 좋은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아무런 댓가없이 도서관을 열어줄 뿐 아니라 학교교장에서부터 지역 교육장, 군수, 시장들을 만나 책읽기의 가치를 역설하여 제주, 경남, 강원, 전남등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 김수연 종친의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동아일보와 제주 KBS, 강원일보등 여러 언론 매체에서 학교에 마을도서관을 만드는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고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차원에서도 농어촌 지역 학교에 마을도서관을 만드는 수연 부회장의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난 연말에는 독서문화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전국 60여개 학교에 마을도서관을 여는 것을 목표로 매월 6-7개의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수연 부회장은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일과 더불어 45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이동도서관 4대를 운영하여 시골학교, 공부방같은 곳을 찾아가 책을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 현장을 찾아 책을 나눠주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 2008년 安東宗親會 정기총회

지난 3월 23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국담정사에서 부산종친회, 인섭회장 및 총무, 영남종친회 동훈회장, 문경종친회 동석회장 및 전회장, 도연종친, 대구명친회 성원회장 및 동균총문, 석호(동영)종친을 비롯하여 둥기, 예천, 의성지역에서 안동종친회 총회에 100명이 넘는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아침부터 봄비가 제법 내리는 가운데 원근에서 일족의 끈끈한 정을 나누기 위해 참석한 종인들은 그동안 안부를 나누면서 하루 종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정담을 나누고 결속을 다짐하였다.

## ▮ 새 회장단 선출

그동안 안동종친회를 사년간 헌신적으로 이끌어 오신 철우회장의 노고를 박수로 화답하였고 식순에 따라 임원개선에서는 구담(판사공파)출신 동출 종친을 새로 회장에 추대하였다.

| 회 장 단 | |
|---|---|
| 회 장 | 동춘 |
| 부회장 | 김진, 종해, 병덕, 창섭 |
| 총 무 | 윤환, 감사, 동성, 상인 |

## ▮ 양경공, 국담공 시 1점씩 증정

이날 행사에 참석한 종인들에게 대구 석호(동영)종친이 직접 쓰신 양경공 국담공 시 1편씩을 원본은 표구하여 국담정사에 보관키로 하고 120여 영인본은 참석자 전원에게 1점씩 증정하여 참석 종인들로부터 환영의 박수가 이어졌다. 아울러 전회장 철우 종친은 참석자 전원에게 타올을 선물하였다.

## ▮ 국담공(참의공) 묘역 반환 건

이곳 국담정사의 최대 현안인 입향조 묘소가 있는 감천리 임야 반환건은 수연(참의공파 종회장)종친이 매입하여 종중으로 희사 할 뜻을 대구 석호(동영)종친을 통하여 밝힘으로서 머지않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참석종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 ▮ 푸짐한 경품 추첨

이날 행사에는 뜻 있는 종친들의 협찬으로 많은 경품등이 참석한 종친들에게 추첨을 통해 골고루 전달되었다. 협찬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표 : 하회탈 3점, 동춘 : 선풍기 10대, 동구(서울) : 선풍기 3대, 동완 : 가스렌지(야외용) 5대, 병덕 : 시계2점, 병덕 : 시계 2점, 종해 : 30만원, 창연(서울) : 20만원, 동숙 : 20만원

## ▮ 역사도서 기증

지난 2월 참의공파회장 수연종친이 이곳 국담정사에 비치할 역사도서 190권(약270만원 상당)을 보내와 정사 아랫방에 진열하여 종인 누구라도 빌려 읽도록 조치하고 있다.

# 겉다르고 속다르고

행태는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는 것 같다. 사극을 보고 있노라면 수백년의 역사가 오늘에 와서도 재연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한번쯤은 느꼈으리라. 지난 총선은 선거 유사 이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고 한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인들이 뼈아프게 반성해야할 가장 중요한 점은 불신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그 것이다. 모 방송사에서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많은 내용들이 바로 불신이였다. 어느 재래시장의 상인이 했던 말이 그 중에서 마음을 울리게 하였다. "우리야 뭐 조금 더 잘살게 해주면 그 만이지요 뭐.. 근데 모두들 겉 다르고 속 다르니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투표 안할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번드르하게 공약 발표하고 주인한테 하듯 공손하게 인사하고 하는 것은 바로 선거철뿐이다. 일단 당선되고 나면 상전도 그렇게 높은 상전이 없다. 그것이 지금까지 선거 풍토였다. 지자체의 구의원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서민들이야 사실 누가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조금 더 잘살게 해주면 되지요"하는 작은 소망이다.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러니 투표할 생각이 나겠는가. 물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럼으로써 바른 정치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당연한 이야기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투표를 했어도 자신한테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았다고 믿은 사람들 또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할 것

그런 서민들에게 호남이 어떻고 영남이 어떻고 어느 당이 어떻고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이다.

선량이라 함은 국회의원을 뜻하는 말도 되지만 엘리트란 의미도 있다. 즉 국회의원은 엘리트이다. 엘리트는 사회를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선도한다는 말은 모든 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

둘째조건은 자기를 선택해준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키는 일일 것이다. 즉 표리부동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당선된 선량들은 제발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들 말로만 말고 모든 국민을 잘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리와 부정이 없는 청념 결백으로 국민을 섬기려는 올바른 국회위원이 되여야 할 것이다.

항상 국민이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단 정치하는 집단만은 아니다. 요즈음 종사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모든 종친의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숭상숭조의 정신으로 일가간에 똘똘 뭉쳐 종사에 헌신 봉사한 많은 종헌들을 우롱하고 자만에찬 독선과 때에 어긋난 아집에 찢어 불목과 불신으로 몇 갈래 분파를 조성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타 집단으로 하여금 종사를 흐트러지게 하여 뜻있는 종친들의 냉소를 자아내는 사례가 있지나 않았는지 우리 다 같이 되돌아보고 깊이 자아반성으로 시급히 체질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中央宗親會 常任 副會長
金 相 容

## 동리정사보수완공

경북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에 있는 동리 정사는 1560년(명종15년) 5월 15일 경북 안동부 풍산현 구담리에서 언양, 고창 수령을 지낸 자순의 손자이고 건공장군 박의 다섯째 아드님으로 태어나셨으며 어머니는 진성이씨로서 퇴계이황 선생의 3兄의 따님이다. 자는 이정, 호는 동리이며 대구 부사를 역임하셨다.

화천서원에 위패를 봉안하고 겸암 류운룡과 졸재 류원자 등과 봄, 가을, 춘추 향사를 받들고 있으며 위동리 정사는 동리 선생의 묘소가 있는 곳에 시제를 받들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 공사개요

2004년 11월 후손 정걸이 고가 보존지원 신청을 안동시에 수차례 방문 제출하여 2006년 9월 문화유산 보수사업으로 지정. 시비 3천만원지원 자 부담. 1900만원

※ 자부담은 전국에 산재한 선생 후손들로부터 모금. 충당.

2006년 12월 안동시 옥정동 장원 봉씨에게 3천 4백여 만원에 낙찰.

2007년 5월 업자와 공사 계약 체결.

2007년 6월 동리정사 보수 고유제.

2007년 11월 마루, 대문교체까지 완료됨.

## 방춘서원(芳春書院) 춘향제 봉행(奉行)

지난 4월 12일(음 3월 7일)에 양경공(襄景公), 절재공(節齋公), 북저공(北渚公) 등 三위와 남은공(南隱公), 망미당공(望美堂公) 등 五위를 배향하는 해남군 계곡면 방춘리에 소재하는 방춘서원에서는 지방유림(地方儒林) 주관으로 수헌관에 박춘재(朴春栽), 아헌관에 박종주(朴鍾柱), 종헌관에 박인복(朴仁福), 축관에 정갑채(鄭甲采)로 하여 송태종(宋泰鍾) 집례로 많은 지방 유림과 우리 종친들이 참례한 가운데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 문경종친회 현조 묘역 찾아 총회개최

지난 4월 20일 문경종친회(회장 김동석)에서는 120여 회원이 대형버스 3대에 분승하여 경기도 안산(安山)의 북저공(北渚公) 묘역에서 정기총회를 성대히 개최한바 있다. 이와 같이 현조님의 묘역을 봉심 참배하고 분중 돈목을 다지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뜻이 있는 일이라 하겠다.

## 절재공파 담양종회 임원개편

지난번 정기총회에서 본회 임원진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 고 문 : 지원, 용원, 안천, 형관, 길주, 승현
▶ 명예회장 : 병석
▶ 회 장 : 형삼(전화 : 010-611-3479)
▶ 부 회 장 : 용석, 판영, 형주, 채진, 기석, 춘석, 길수, 준철, 이후
▶ 이 사 : 환영, 형규, 성철, 영환, 두석, 종원, 완석, 재석, 광석 순종
▶ 감 사 : 석원, 광원
▶ 총 무 : 유석(전화 : 011-641-6071)

# 과거(科擧) 시관을 지내신 원사공(院使公) 휘 평(平)

고려(高麗) 시대를 사신 우리 김문(金門)의 조상님이 고문헌(古文獻)에 나타나는 분이 많지 않은데 그 중의 한 분이 14세(世)조이신 원사공(院使公) 휘 평(平)이시다. 공은 고려의 무신정권(武臣政權)기에 사셨으며 재주가 많으시고 학문이 높으셨다고 전한다. 이에 고문헌인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 절요(高麗史節要)에 실린 공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한다.

관직은 청반(淸班)에만 계셨었고 특히 문사(文士)를 뽑는 과거시험관(科擧試驗官)을 여러 차례 지내셨음을 알 수 있으니 이를 밀우어 보아도 과연 학문이 높으셨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고려사(高麗史)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통권100 열전(列傳) 기탁성(奇卓誠)전에

有金平者 少有文名 金甫當之亂 妻父韓彦國被戮
平携妻子隱昇平郡 及卓誠秉政 以平有才 擢爲直史館

〔젊어서 문명(文名)이 높은 김평(金平)이란 이가 있었는데 1173년 김보당(金甫當)의 난(亂)때 장인(丈人) 한언국(韓彦國)이 난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매 김평은 처자(妻子)를 데리고 고향인 승평군(昇平郡)에 가서 은거하였다. 4~5년 후 기탁성(奇卓誠)이 정권을 잡자 재주가 있는 김평을 발탁하여 사관(史館)의 정九품직인 직사관(直史館)으로 등용하였다〕라고 하였고

2) 신종(神宗) 원년(1198)4월 조에는

秘書監金平 取詩賦智大成等十九人 十韻詩殷世儒等七十二人
明經七人

〔비서성(秘書省)의 비서감(秘書監) 김평(金平)이 과거 시험관이 되어 시부(詩賦)에 지대성(智大成)등 19인. 십운시(十韻詩)에 단세유(段世儒) 등 72인. 명경(明經)에 7인을 뽑았다〕하였으며

3) 신종(神宗) 2년(1199) 9월 조에는

參知政事崔詵知貢擧 秘書監金平同知貢擧 取進士賜崔得儉等
三十三人及第

〔참지정사 최선(崔詵)을 수석 시험관으로 하고 비서감(秘書監) 김평(金平)을 차석시험관으로 하여 진사(進士) 최득검(崔得儉) 등 33인을 급제시켰다〕

4) 신종(神宗) 4년)1201) 5월 조에는

簽書樞密院事(?使) 閔公珪知貢擧 國子大司成金平同知貢擧
取進士崔宗俊等三十三人及第

〔첨서 추밀원사(樞密院事) 민공규(閔公珪)를 수석시험관으로 국자감(성균관) 대사성(大司成) 김평(金平)을 차석시험관으로 하여 진사(進士) 최종준(崔宗俊)등 33인을 급제시켰다〕

5) 신종(神宗) 5년(1202) 5월 조에는

樞密院使金平知貢擧 右承宣趙準同知貢擧 取進士賜黃克中等參
三十三人明經四人及第

〔추밀원사(樞密院使) 김평(金平)을 수석시험관으로 우승선(右承宣) 조준(趙準)을 차석 시험관으로 하여 진사 황극중(黃克中) 등 33인과 명경(明經) 4인을 급제시켰다〕

6) 희종(熙宗) 원년(1205) 4월조에는

樞密院使金平卒

〔추밀원사(樞密院使) 김평(金平)이 졸함〕이라고 실려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조선조의 홍문관(弘文館)격인 사관(史館)의 직사관(直史館)으로 발탁되시어 근 20년간 여러 관직을 거치셨으리라 생각되며 비서성의 비서감(秘書監), 성균관격인 국자감(國子監)의 대사성(大司成), 그리고 정부의 중추기관인 추밀원(樞密院)의 종2품인 사(使)에까지 올으셨으니 고려조의 중신(重臣)의 반렬에 계셨음을 알 수 있고 특히 문사(文士)를 뽑는 과거시험관을 연이어 여러차례 지내셨음은 학문이 그만큼 높으셨음을 알 수 있는 일이라 하였다. 우리 가승보(家乘譜)에 보면 박학(博學)하시고 문장(文章)이 능하셨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러하셨음을 알 수 있겠다.

다음에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는

1) 권14 신종(神宗) 정효대왕(靖孝大王) 5년(1202)조에

金平李自貞 竝爲樞密院副使

〔김평(金平)과 이자정(李自貞)이 함께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에 임함〕이라 하였고

2) 권14 희종(熙宗) 성효대왕(成孝大王) 원년(1205) 4월 조에

樞密院使金平卒 平早有文名 金甫當之亂 其外舅韓彦國被戮
平携妻子 隱於昇平郡 及奇卓誠秉政 以才擢用

〔추밀원사(樞密院使) 김평(金平)이 졸함. 그는 일찍이 문명(文名)이 높았었는데 김보당(金甫當)의 난 때 장인인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 한언국(韓彦國)이 난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니 김평(金平)은 처자를 데리고 승평군으로 내려가 은거하였다. 기탁성(奇卓誠)이 정권을 잡자 재주가 있는 그를 발탁하여 등용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실린 내용은 극히 일부분만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대로 고려사(高麗史)에 실린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니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위 두 문헌에 실린 내용만으로 공께서 고위 관직에 계셨었고 학문이 높으셨음을 알 수 있으나 다른 사적(事蹟)은 찾아볼 수 없어 밀우어서 흠모할 수밖에 없으니 어찌 아쉬운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아직까지 알 수 없는 공의 성정(性情)이나 다른 행적 등 다른 사적은 물론 고려시대를 사신 다른 선조님들의 사적 또한 어디에선가 찾아내어 한스러운 궁금증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다.

# 존재(存在) 그리고 행복(幸福)!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희망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행복을 느끼며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사는 것 같지만 속사정을 알아보면 근심걱정이 없는 집이 없다. 서로 상반된 상대적인 쌍으로 되어진 것이 존재원리이기 때문이다. 행복과 불행이 짝이라서 날이 가면 밤이 오듯 행복 뒤에는 늘 불행이 쫓아다닌다. 하루가 존재하기 위해서 밤과 낮이 있듯이 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손바닥과 손등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존재 원리다.

밤과 낮이라는 둘이 합쳐 하루라는 하나를 이루니 하루 속에는 둘이 들어 있어 하나이면서 둘이라 하는 것이고 둘이 합쳐 하나를 이루었으니 둘이면서 하나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즉다(一卽多) 다즉일(多卽一)이라 하는 것이고 그 본질을 불이(不二)라 하는 것이다. 존재원리 속에 만법이 하나로부터 생겨나고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자연의 이치가 들어있는 것이다. 둘이 합쳐진 하나를 전체라 하고 전체를 이루는 둘을 개체라 하는데 전체는 불변의 원리를 따르고 개체는 가변의 원리를 따른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은 언제나 일정하지만 밤낮의 길이는 늘 변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서로 개체이면서 전체로서, 전체이면서 개체로서 작용하기에 변하는 속에 영원성이 이어지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이처럼 분명히 둘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쪽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개체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며 개체적인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니 변하는 것은 참이 아니기에 우리의 삶을 허상이라 하는 것이다.

누가 말했던가! 일장춘몽이라고.....

보여지는 것만 보는 눈을 육안(肉眼)이라 한다. 심안(心眼)이 열려야 보이는 것 넘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心眼을 열수 있는 길은 언어문자로 표현될 수 없는 깨달음 그 자체이기에 깨달음을 얻는 성현(聖賢)들께서는 믿으라고 할 뿐이다. 心眼이 뜨이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볼 수 있으니 마음을 보는 것이 견성(見性)이고 見性이 깨달음인 것이다.

존재원리에 의하면 보이는 것 너머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 있음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 없다, 하느님이 있다, 없다 혼돈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肉眼으로는 전체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중생(衆生)은 이것과 저것이 서로 다르기에 둘이라 하고 깨달은 자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은 같은 하나로 보는 것이다. 깨달은 자는 중생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은둔생활을 하고 침묵하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성현들은 자연을 스승으로 한다. 예수께서도 스승은 하느님 한분뿐이라고 말씀 하신 것도 우주자체가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연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소리 없는 말씀을 듣는다. 중생은 한쪽만 보기 때문에 늘 변하는 허상(虛象)속에서 살지만 깨달은 자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참 속에서 산다. 허상속에서 사는 것이 참속에서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새로 태어나는 부활인 것이다. 전체의 속성은 무심의 자리요 불고 불락의 자리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도의 자리다.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요 도의 자리며 하느님의 자리일 것이다.

언어 문자로 표현될 수 없기에 그 자리를 깨우쳐 주려고 석가세존께서나 예수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 중생은 그 분들이 남겨주신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일이다. 사람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바른 법 만나기 어렵거늘 어찌 탐욕에만 집착하며 서로 다투고 그릇되게 사는가? "사랑하면 행복을 느끼고 미워하면 분노가 나와 남을 불행으로 이끈다."함을 알고 믿는다면 늘 마음을 살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머물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고 하는 황금률을 실천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이다.

2008년 4월 20일 圓一 김광연

# 유쾌(愉快)하게 생활합시다.

1. 유쾌한 삶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되는 것이 필요(必要)합니다.

세계4대(大) 성인(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의 생활이란 것은 인간 사회를 떠나서 참으로 처음부터 거룩한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다운 생활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굳이 말한다면 석가모니께서도 「웃어야 할 때에 웃지 않고, 기뻐해야 할 때에 기뻐하지 않으며, 자비(慈悲)심을 발휘해야 할 때에 자비심을 발휘하지 않으며, 악(惡)한 일을 저지르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선(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선(善)을 쌓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다. 「웃어야 할 때에 웃고, 기뻐해야 할 때에 기뻐하며 악(惡)한 짓을 하면서 부끄러워하며, 선(善)을 듣고서 그것을 마음속에 아로 새기는 자(者)는 확실히 사람다운 사람이다.」

유쾌하고 즐겁게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은 확실히 인간으로서 미덕(美德)인 것이다. 미덕(美德)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덕을 말한다. 덕(德)이라고 하는 글자는 「곧은 마음(直心)을 행(行)한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文字)로 조합(組合)시킨 것이다. 직심(直心)이라고 하는 말은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웃어야 할 때에 웃는 것이다.

기뻐하고 현명해야 할 때에 기쁜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따뜻한 마음을 일으켜야 할 때에 꾸밈없이 모든 것을 감싸주고 아오르는 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피돌기를 좋게 하여 공부나 일을 하는 힘을 돋구어 주고, 비관(悲觀)한다거나 마음이 우울하거나 한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생각(idea)를 일으키게 해 준다.

우리 한족인은 예부터 「희로(喜怒 : 기쁨과 노여움)을 얼굴에 나타나지 않게 하여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미덕(美德)으로 알아왔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대부분의 병(病)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쁨이다.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화가 나는 일은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할 수는 없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마음속에 있는 기분을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가 남아있지 않게 되므로 화가 나는 일도 자연(自然)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있으면 인간의 실상(實相)은 유쾌함으로 바뀌어 분명하게 즐겁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항상 생글생글 미소(微笑)짓고 있는 사람은 신체도 튼튼하다. 미소란 「싱글벙글」입니다. 「볼(cheek)이 어딘지 모르게 기쁨의 미소가 떠 있는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미소 짓는 모습을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이를 영어로는 「Laugh care : 웃음으로 건강을!」

2. 사람의 결점(缺点)을 보지 맙시다.

항상 유쾌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나쁜 버릇이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는 버릇입니다. 트집 잡는 버릇은 인생을 불유쾌(不愉快)하게 하는 가장 나쁜 버릇이며 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버릇 중에 트집 잡는 것입니다.

집안에 어느 한 사람이 이런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재미있고 유쾌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트집 잡는 사람이 끼어 있다면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어 아무리 그 결점을 폭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결점이 없어지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정하려고해도 나타나게 되는 것은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결점을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그 결점은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점(美點 : 아름다운 점)을 인정해 주면 줄수록 좋은 점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나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미점(美點)만을 좋아하면서 선(善)한 것, 아름다운 것 굉장히 발전적이고 조화(調和)롭고 평화(平和)스러운 것만이 나의 삶의 전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악(惡)한 것, 추(醜)한 것, 빈약(貧弱)한 것, 부조화(不調和)한 것, 다툼이 있는 것 등은 실제로 인간의 나약하고 쓸게 없는 욕심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3. 마음에 불평(不平)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장에서 일하는데도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실패가 없고 고장(故障)도 없이 일을 잘하게 되고 또한 일의 능률도 올라간다. 1945년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공장의 직공(職工)들이 월급이 적다고 말하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불평하면서 제품(製品)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만든 비행기는 거의다가 현지(現地)까지 날려가면 뒤뚱뒤뚱하면서 비행기가 불안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면 공중분해(空中分解)되어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싸움을 하지 못하고 몰살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일본이 평화 국가로서 훌륭한 나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은 과거의 잘못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롭게 조상의 훌륭한 정신을 무장시키는데 온갖 정열을 바쳐온데 있다는 보도(報道)를 접했습니다.

우리들도 조상의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와 후손이 함께 영화롭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필자 : 한밭대학교 정보통신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승연

#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8년 2월 1일부터

### 부 회 장

1. 김행엽 2008. 3. 4 서울특별시 강남구

### 이 사

1. 김인수 2008. 2. 11 충청남도 보령시
2. 김상근 2008. 2. 29 충청남도 천안시
3. 김상우 2008. 2. 29 경기도 용인시
4. 김영환 2008. 3. 3 전라북도 정읍시
5. 김강영 2008. 3. 4 경상북도 문경시
6. 김기석(이병) 2008. 3. 7 경기도 고양시

### 대 의 원

1. 김대석 2008. 2. 25 충청남도 보령시
2. 김수영 2008. 2. 28 충청북도 청주시
3. 김상대 2008. 2. 27 전라남도 해남군

### 운영위원

1. 김용득 2008. 3. 5 전라남도 나주시

### 이 사

1. 김봉태 2008. 3. 7 경상북도 안동시
2. 김달현 2008. 4.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 회 원

1. 김영조 2008. 1. 28 광주광역시 서구
2. 김태연 2008. 1. 30 충청북도 청주시
3. 김해용 2008. 1. 31 대전광역시 서구
4. 김동웅 2008. 2. 5 경상북도 경산시
5. 김동웅 2008. 2. 11 경상북도 경산시
6. 김길원 2008. 2. 21 광주광역시 동구
7. 김상원 2008. 2.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8. 김동선 2008. 2. 22 경각도 이천시
9. 김지일 2008. 2. 22 경기도 광명시
10. 김봉택 2008. 2. 22 경상남도 양산시
11. 김창수 2008. 2.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12. 김낙훈 2008. 2. 25 경기도 고양시
13. 김두원 2008. 2. 22 경상북도 경산시
14. 김정학 2008. 2. 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5. 김동업 2008. 2. 26 경기도 안양시
16. 김영석 2008. 2. 26 서울특별시 서초구
17. 김길원 2008. 2. 25 충청남도 서산시
18. 김봉태 2008. 2. 22 전라남도 해남
19. 김범태 2008. 2. 26 전라남도 광양
20. 김상천 2008. 2. 27 경기도 파주시
21. 김용환 2008. 2. 27 서울특별시 서초구
22. 김동섭 2008. 2. 25 경상북도 봉화군
23. 김영태 2008. 2. 28 경상북도 구미시
24. 김양정 2008. 2. 29 인천광역시 연수구
25. 김동호 2008. 2. 29 충청북도 충주시
26. 김종식 2008. 2.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 김준희 2008. 2. 27 전라북도 전주시
28. 김휘천 2008. 2. 29 경기도 수원시
29. 김중희 2008. 2. 29 광주광역시 북구
30. 김타관 2008. 2. 29 울산광역시 북구
31. 김공원 2008. 3. 3 광주광역시 서구
32. 김동익 2008. 3. 5 대전광역시 대덕구
33. 김상준 2008. 3. 5 대전광역시 서구
34. 김춘식 2008. 3. 7 인천광역시 서구
35. 김이승 2008. 3. 7 경기도 의왕시
36. 김재석 2008. 3. 10 광주광역시 서구
37. 김용태 2008. 3. 11 광주광역시 북구
38. 김인환 2008. 3. 12 대구광역시 남구
39. 김창호 2008. 3. 11 전라북도 임실군
40. 김동일 2008. 3. 17 경기도 시흥시
41. 김구연 2008. 3.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42. 김상하 2008. 3. 20 경기도 평택시
43. 김필수 2008. 3. 24 인천광역시 강화군
44. 김강희 2008. 3. 24 부산광역시 남구
45. 김택수 2008. 3. 26 경상북도 구미시
46. 김동필 2008. 3. 28 서울특별시 강동구
47. 김수광 2008. 4. 2 인천광역시 부평구
48. 김동석 2008. 4. 3 서울특별시 양천구
49. 김영원 2008. 4. 7 전라북도 익산시
50. 김염섭 2008. 4.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 무 명 인

1. 2008년 2월 25일 신녕농협
2. 2008년 2월 25일 경북상주농협
3. 2008년 2월 27일 외환은행/연희동지점
4. 2008년 2월 28일 신협은행/이천지점
5. 2008년 2월 28일 농협/서안동지점
6. 2008년 3월 19일 농협/영천시지부
7. 2088년 3월 28일 하나은행/대전영업부

## 귀뚜라미 Homsys

### 제2008년 귀뚜라미장학금 수여식

▶ 일시 : 2008년 3월 21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이천 로얄호텔 그랜드볼룸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부회장이며 귀뚜라미 건설 대표이사이시다. 귀뚜라미 홈시스 인천 대표이사인 김지호 부회장은 2008년 3월 21일 인천 로얄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하여 박창규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나근형 인천광역시 교육감, 전년성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 인천시 국회의원 등 1천여명의 내외 귀빈이 운집한 가운데 제 2008년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안상수 인천광역 시장은 축사를 통해 자신도 어린시절 집안이 가난하여 장학의 혜택을 입고 공부하였다고 회고하고 아무리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절대로 굴하지 말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닦아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큰 일꾼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김지호사장의 평소 지론인 "기업의 이윤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철학으로 9년째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경이와 찬사를 아낌없이 보낸다고 하였다. 이날 장학금 수혜자는 김영배 서강대학생 외 30명에게 장학 증서가 수여되었다.

안녕하세요 양지은 식품 대표 양지은 입니다.

우선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양지은 식품을 애용해 주시는 소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회사 및 김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지은 식품은 철저한 위생관리를 바탕으로 엄선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최고급품질의 김치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10여년 이상을 메리어트호텔을 비롯한 국내 유수의 호텔과, 수도권 골프장 약 40여 곳에 납품하며 김치의 맛과 품질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포기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돌산갓김치, 백김치, 파김치 등 20여 종류가 있으며, 전 직원이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의 마음으로 김치를 생산하여 품질과 맛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언제나 간직하여 더욱더 맛있고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의 식탁에서 언제나 사랑 받는 김치를 만들고자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김치를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양지은 식품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364번지
TEL:(031)797-5697, FAX:(031)797-1597

# 젊은 청소년에게

【 이나모리가즈오(稻盛和夫) : 1932년생 경도 세라믹 주식회사 창업
『삶의 방법』이란 책을 저술하여 오랫동안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 책을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을 실어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며 본인이 그 일부를 소개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고 잘 읽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혼미(混迷)한 시대(時代)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야 말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찌.. 「삶의 방법」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우리들은 지금 너무나 혼탁한 세상(世上)이기에 앞을 전혀 내다 볼 수 없는 불안(不安)한 시대(時代)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物質的)으로 풍요롭게 된 것은 분명한데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텅 비어있고, 먹을 것, 입을 것도 걱정할 것이 없지만(물론 빈곤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 우리들 조상들이 그렇게도 중시(重視)해 왔던 예절(禮節)은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무엇인가? 자유(自由)롭지만 어딘가 마음을 열수 없는 폐쇄감(閉鎖感)이 있습니다. 할 마음만이라도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으면서도 무기력(無氣力)하고 비관적(悲觀的)으로 되어, 그 중 어떤 사람은 범죄(犯罪)나 좋지 못한 일에 손을 대어 일생을 행복(幸福)에서 멀어져 갈 수 밖에 없는 삶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어두운 먹 그림자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意味)나 가치(價値)를 올바로 찾지 못하고 인생(人生)의 지침(指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서 기인(起因)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선, 이 중요한 물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삶의 지침」으로서 「올바른 철학(哲學)」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학이란, 이념(理念) 혹은 사상(思想)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사막(砂漠)에 물을 뿌리는 것처럼 무모한 행위이며, 계곡에 흘러 들어가는 물에 말뚝을 박으려는 행위처럼 허황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熱心)이 땀 흘려 일하고 노력(努力)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어리숙하고 바보같이 보이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단순(單純)하고 거리낌 없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일이, 그래도, 저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근간(根幹)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방식을 고찰(考察)하려는 시도(試圖)가 없는 한, 점점 혼탁한 세상은 우리의 생존(生存)까지도 무너지게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회가 혼란(混亂)해지고 그 결과로 빚어지게 될 절박한 상황(狀況)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역시 저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글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기쁨을 발견해내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인가 조그마한 도움이 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면(紙面)이 허락하면 다음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①영혼을 갈고 닦는 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 .
② 단순한 원리 원칙이 흔들릴 수 없는 삶의 지침으로 된다.
③ 인생의 진리는 열심히 일하므로써 깨달을 수 있다.
④ 사고방식을 바꾸면 인생은 180도 달라진다.
⑤ 마음에 그린 것이 실현하게 된다고 하는 우주의 법칙.
⑥ 인류에게 예지의 능력을 가져다준 지혜의 창고가 있다.
⑦ 자기 자신을 엄하게 다스리는 「왕도(王道)에 대한 삶의 방식.」
⑧ "구(求)하는 것만 손에 들어오게 한다." 라고 하는 인생(人生)의 법칙.
⑨ 자나깨나 강렬하게 계속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밭대학교 정보통신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승연(시조로부터 40대손)

# *Your Dreamworld*

오늘도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당신이 있어 한화는 행복합니다

한화와 함께하는 〈Dream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 Dream Song UCC 공모전 ● Campus Dream Party ● 한화 체험단 모집 www.hanwha.co.kr 참조

Your Dreamworld Hanwha